

종합·해설

민선 5기 1년

해 되풀이된 구태

음해·투서·뇌물·형세 빼먹기...

지역민들 개탄에도 여전히 자행

'참여와 소통'을 화두로 야심차게 출발한 민선 5기지만 1~4기 지역민들의 눈총을 샀던 구태(舊態)들은 여전히 있다. 음해서 투서와 압부가 난무하고, 전일자 정적 뒤집기가 되풀이되는가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공직자들의 형세 빼먹기와 방만한 사업 추진도 여전히 있다.

신안·구례군수 비리혐의 등 연루 행정공백 우려 전남자치단체 공직기강 해이 310건이나 적발 U대회 수영장 입지 재검토 등 정책 뒤집기도

◇단체장 비리, 공직기강 해이 여 전=신안군민들은 군정 얘기가 나오면 실망과 자괴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다. 지역 발전에 총력을 쏟아야 할 시기에 박우량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 하는 벌금 100만원 을 선고받으려 다 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내부에서도 방조제 공사를 추진하면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 군청이 압수수색당 하는 수도를 겪는가 하면, 정부 보조금

을 횡령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이 구속 됐다.

이들은 열지도 않은 행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공인 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형세를 타내 회식비 등으로 쓴 것으로 밝혀져 공직 기강이 위태 수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평군에서는 폭설 피해 복구 대상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공무원 5명이 경찰에 입건, '신뢰'를 저버렸다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남도에서도 사법부 견설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무원이 구속됐다.

전남도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난 3월까지 모두 310건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신고돼 있다. 사례별로는 ▲금품·향음 12건 ▲공금횡령·유용 4건 ▲무사안일 11건 ▲품위상상 238건 ▲북부규정 위배 45건 등으로,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개 시·군 중 여수가 62건으로 가장 많아 '별명'에 안맞고 담양군은 26건으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음해성 투서, 내부 갈등=광주시청 주변은 제 1, 2 하수처리장 종인시설 시공사 선정 및 도시공사 사장 선임 여부, '실세 4인방' 등과 관련된 음해성(陰害性) 괴소문과 투서 등이 나돌면서 술렁이고 있다.

종인처리시설의 경우 900억원대에 이르는 대형 공사인데다, 특정 세력 연관성 및 일부 공무원 개입설까지 떠돌았던 조차 내 갈등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다.

완도군에서도 불순한 투서가 넘쳐나면서 급기가 주민들 스스로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지역 갈등과 혼란을 조정해 주는 안된다는 시민 운동에 나선 상황이다.

음해성 투서의 사실 여부를 떠나 민선 4기를 지내면서 끊임없이 되풀이됐던 악습이 되풀이되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순천시시의 경우 '정례회 시정 질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천시의회가 시장을 검찰에 고소하는가 하면, 지역 최대 현안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원박람회와 경우박람회 조성 등을 위한 국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다, 박람회장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송전탑의 지중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역 역량을 결집해도 부족한 판에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신안군도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로 나뉜 조직 간 갈등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역민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다.

◇전임 단체장 흔적 지우기=광주시는 지난 2009년 6월 수완지구로 결정됐던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수영장' 입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계약까지 마친 상황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강태원 광주시장은 "전임 시장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다. 원안대로 추진하면 나중이라도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과, 행정의 일관성을 해쳐선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평군도 최근 내비 이미지를 향상 화해 조성한 가로등을 '황소'로 바꿔 설치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역 인지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바 있는 가로등 교체 필요가 있는바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내비 이미지를 향상 화해 조성한 가로등을 '황소'로 바꿔 설치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역 인지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바 있는 가로등 교체 필요가 있는바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내비 이미지를 향상 화해 조성한 가로등을 '황소'로 바꿔 설치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역 인지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바 있는 가로등 교체 필요가 있는바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내비 이미지를 향상 화해 조성한 가로등을 '황소'로 바꿔 설치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역 인지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바 있는 가로등 교체 필요가 있는바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내비 이미지를 향상 화해 조성한 가로등을 '황소'로 바꿔 설치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역 인지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바 있는 가로등 교체 필요가 있는바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내비 이미지를 향상 화해 조성한 가로등을 '황소'로 바꿔 설치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역 인지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바 있는 가로등 교체 필요가 있는바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내비 이미지를 향상 화해 조성한 가로등을 '황소'로 바꿔 설치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역 인지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바 있는 가로등 교체 필요가 있는바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내비 이미지를 향상 화해 조성한 가로등을 '황소'로 바꿔 설치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역 인지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바 있는 가로등 교체 필요가 있는바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내비 이미지를 향상 화해 조성한 가로등을 '황소'로 바꿔 설치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역 인지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바 있는 가로등 교체 필요가 있는바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내비 이미지를 향상 화해 조성한 가로등을 '황소'로 바꿔 설치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역 인지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바 있는 가로등 교체 필요가 있는바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내비 이미지를 향상 화해 조성한 가로등을 '황소'로 바꿔 설치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역 인지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바 있는 가로등 교체 필요가 있는바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내비 이미지를 향상 화해 조성한 가로등을 '황소'로 바꿔 설치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역 인지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바 있는 가로등 교체 필요가 있는바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다문화 전통음식 맛보세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에서 광주로 시집 온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자국의 전통 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다문화 음식문화 축제'가 25일 광주 광산구 광주도시철도공사 평동역에서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국립대 기성회비 2800여억원 교수·직원 인건비로 썼다

최근 9년간 전국 40개 국립대 학생들이 내 13조2520억원의 기성회비가 가운데 약 2조8000억원이 국립대 교수와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국립대생이 내는 등록금은 기성회비(등록금의 약 80%)와 수업료(등록금의 20%)로 구성돼 있으며, 기성회비는 학교 운영과 교육을 위해 쓰도록 돼 있다.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의 교수와 직원의 연봉은 정부가 지급하기 때문이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 기성회비 현황'에 따르면 전 전국 40개 국립대는 2002~2010년 기성회비 수입(13조2520억원) 가운데 2조8172억원을 급여 보조금 인건비로 책정해 교수·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 금액은 연구보조비, 연구지원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됐지만 실질적으로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연봉 보조 성격이 강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학교별 규모는 서울대 4308억원, 부산대 2065억원, 경북대 2001억원, 전남대 1644억원, 강원대 1469억원, 광주교대 125억원, 목포대 469억원, 순천대 415억원, 목포해양대 164억원 등이다. 이렇듯 기간 돈이 기성회 회계의 세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서울대 27%, 충북대 24.8%, 경북대 23%, 부산대 22.7%, 강원대 22.5%, 전남대 20.3%, 목포해양대 24.8%, 광주교대 22.1%, 목포대 20.7%, 순천대 18.5% 등이었다. 전체 평균은 21.3%였다.

기성회비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재계 결과에 따르면, 총 40개 국립대 중에서 15개 국립대가 C등급이 하였고 총 26개 대학이 C등급 이하 등급을 받아 국고지원액 3.5% 삭감

서울대 E 등급으로 2.0% 삭감, 전남대와 충남대가 D등급으로 1.5% 삭감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고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20개대 등록금 감사

감사원은 다음달 초부터 20여개 대학을 선정, 등록금 예비 감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비조사 대상은 적립금 규모와 불용률, 등록금 의존율, 재학생 충원률, 인건비 비율 등 대학의 재정과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승촌보 찾아 홍수 예방 점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장광근·한나라)는 24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승촌보 현황을 둘러

본이 참석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승촌보 현황을 둘러본 뒤,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위원장은 "보에 설치된 수문이 고장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홍수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현장에 직접 와보니 가동보로 운용이 돼 홍수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중호수에 대비해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승촌보에 설치된 가동보의 역할에 대해 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등 집중 호우시 반란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빛의 만평 - 김준우

롯데제이티비 롯데제이티비 1577-6511 www.LOTTEJTB.com

중국 북경 (가족여행지 북경관광 특선) [초특급 메리어트] 북경, 만리장성 + 용경원/금면양조 4/5일

상해 [가족여행] 상해/항주/서당 4일 429,000원 ~ 7/25 8/18,22,29

동남아 \*나는 특가다! 보라카이 준특급 리조트 (타이즈) 4/5일 799,000원 ~ 7/23,27 8/3,6,10,17,20,24

유럽 [유럽여행] 터키/안탈리아/특급호텔 9일 1,690,000원 ~ 7/5,9,13,17,21,25,29,31

미주 [미주여행] 두베로 즐기는 하와이+이웃섬 6일 1,590,000원 ~ 7/16,23,30,6,13,20,27,24,31

중국 남태평양 [남태평양여행] 호주 뉴질랜드 북섬+다우포 8일 2,090,000원 ~ 7/24,31,7,14,21,28

동남아 \*롯데대호쇼핑\* 인기상품 시리즈 [특급패티아] 품의비행 A380! 방콕/파타야+일자유 5일 599,000원 ~ 7/23,26,29,31,3,6,9,12,13,16,19,22,25,28,30,31

중국 [아시아여행] 장춘 백두산(북파) 천자+장백폭포 4일 449,000원 ~ 7/14,21,28,8,4,11,18,25

일본 [일본여행] 후쿠오카 벵부 아소 유류인 3일 399,000원 ~ 7/16,9,12,15,18,22,29,8/2,5,9,16